

2023. 8. 28. ~ 9. 4.

TAIWAN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23. 09.

[공모 제4팀 - 대만]

목 차

I. 연수 목적	1
II. 연수 개요	1
III. 연수주제 관련 사전연구 내용	4
IV. 세부 연수 내용	9
1. 대만 중앙선거위원회(CEC) 방문	9
2. 대만 국립대학(TNU) 방문	18
3. 시대역량 정당(NPP) 방문	26
4. 현지인·유학생 면담	33
V. 시사점 및 총평	39

2023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결과

[공모 제4팀]

I 연수 목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참여 활성화 제도 관련 기관·현장 방문을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
- 공직선거에서 사회적 약자 등 투표참여 편의 증진 방안 고찰
- 외국의 정치·선거문화·제도에 대한 이해로 창의·혁신 마인드 함양

II 연수 개요

① 연수국가 : 대만(Taiwan, 중화민국, Republic of China, 이하 대만)

<대상국 선정 사유>

- EIU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 따르면 대만은 아시아 1위(전체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임.
- 2022년 실시한 지방선거를 비교했을 때 대만은 직할시장선거 59.86%, 현시장 선거 64.2%로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투표율(50.9%)보다 높은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적극적임.
- 특히 선거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투표소 개표가 진행된다는 점, 남-북한의 관계와 중국-대만과의 갈등 관계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대만의 정치·선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함.

② 연수주제 : 대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참여 활성화 연구

- ※ 연수주제 외 투표소 내 개표, 중국-대만 관계로 인한 선거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방향, 코로나19 이후 투표 방안 등 대만 정치 관련 전반에 대한 병행 연구

③ 연수기간 : 2023. 8. 28.(월) ~ 9. 4.(월) [7박 8일]

④ 연수대상자 : 6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업무분장)
팀장	대구 지도과	행정7급	윤석현	◆ 기관 조율 및 섭외
팀원	부산 사상구	행정7급	윤민제	◆ 대만국립대학, 시대역량 관련 자료 수집
	대구 서구	행정7급	김동욱	◆ CEC 관련자료 수집 ◆ 결과보고서 작성
	대구 서구	행정7급	강현우	◆ 통역 섭외 ◆ 현지 대학생 인터뷰 준비
	대구 수성구	행정7급	이재용	◆ 총무(환전 및 각종 결제 등)
	대구 달서구	행정7급	박준승	◆ 이동경로, 식당 및 숙소 예약 ◆ 현지 대학생 인터뷰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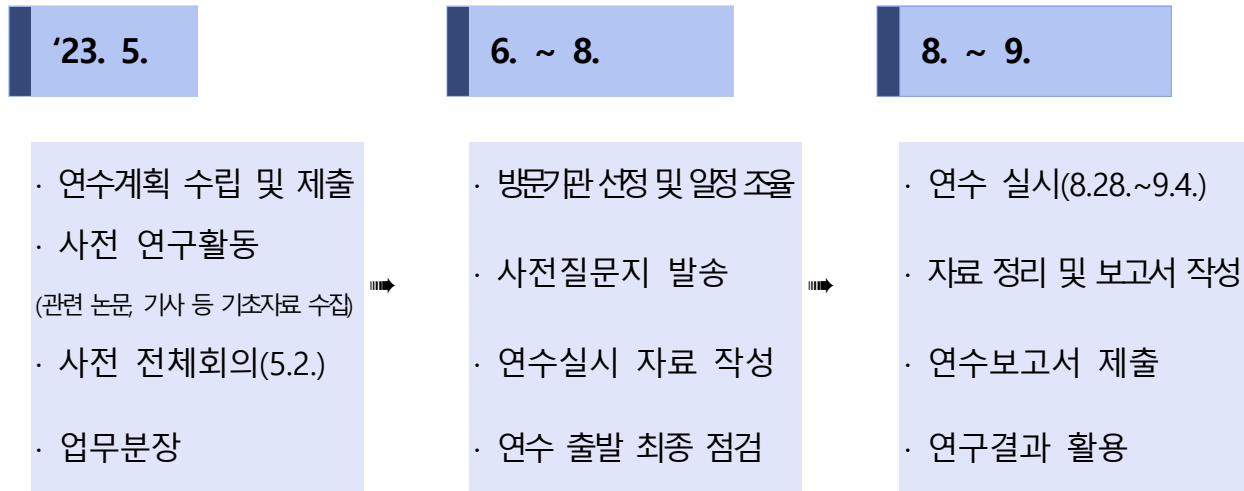
⑤ 방문기관

- 중앙선거위원회(CEC - Central Election Commission)
- 대만국립대학(NTU - National Taiwan University)
- 시대역량당(NPP - New Power Party)

<시대역량당 방문기관 선정 사유>

- 2014. 3.~4.에 발생한 대만 입법원(한국의 국회 격) 점거사건인 '해바라기 운동' 종료 후 이를 주도한 대학생,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결성한 정당
 - 2016년 입법위원(국회의원) 5석, 2020년 입법위원 3석을 보유한 원내진입정당
 - 청년 정치 및 중도좌파 성향의 이념을 지향하며 정당지지율은 3~4위
- ⇒ 청년 주도로 발생한 정치사회운동(해바라기 운동)이 원동력이 돼 결성된 정당이자 청년의 정치세력화,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정당이므로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연구를 위하여 방문기관으로 선정함.

⑥ 주요 추진일정



⑦ 연수일정표

일 자	지 역	세부일정	비 고
8. 28.(월)	김 해 → 대 만	○이동 ○기관방문 인터뷰 자료 준비 등	
8. 29.(화)	대 만	○대만 중앙선거위원회(CEC) 방문	
8. 30.(수)	대 만	○면담·방문 자료 등 연수 결과 중간 정리·토의 ○교수 면담 및 현지인 면담 준비 등	
8. 31.(목)	대 만	○대만 국립대학 방문 교수 면담 ○대만 국립대 학생 현지 면담	
9. 1.(금)	대 만	○시대역량(NPP, 대만 정당) 방문 ○한국 유학생(대만국립대학 사회과학 대학 정치학 석사과정) 면담	
9. 2.(토)	대 만	○휴식 및 개인정비	
9. 3.(일)	대 만	○연수결과 최종 정리·토의 ○타이베이 공항 출발 및 귀국	
9. 4.(월)	대 만 → 대구·부산	○복귀	

1 기본현황 (요약, 23. 3월 기준)

지 리	면 적	36,192㎢(남한의 약 1/3배)
	인 구	약 2,357 만명
	중심 도시	타이베이(Taipei, 인구 255 만명)
	종 교	불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언 어	중국어(공용어), 민난어(대만 방언), 객가어(중국 남방지역 방언)
	기 후	아열대성 해양기후(여름 33℃, 겨울 13℃ 평균)
	지 형	대부분이 산악지역(경작가능 면적 비율: 24%)
정 치	정 부	총통(4년 중임제)제하 오권 분립(입법·사법·행정·고시·감찰)
	주요인사	총 통 : 차이잉원(蔡英文)
		부 총 통 : 라이칭더(賴清德)
		행정원장 : 천젠런(陳建仁)
		입법원장 : 유시쿰(游錫堃)
	외교장관 : 우자오셰(吳釗燮)	
주요 정당	민주진보당(62석)	
	중국국민당(38석)	
	대만민중당(5석), 시대역량(3석), 무소속(5석)	
경 제	경제성장률 / GDP [2022]	2.45% / 7,802.09억불 (1인당 GDP 33,565불)
	교역액 [2022년 누계]	9,069억불 (수출 4,795억불, 수입 4,274억불)
	우리와의 교역액 [2022년]	544.72억불(우리측 수출 : 261.98억불 / 우리측 수입 : 282.74억불)
	투자 [2022년]	대만의 對한국투자 : 4.67억불 한국의 對대만투자 : 1.35억불
양 자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949.1월 외교관계 수립 o 1992.8월 단교, 1993.7월 비공식관계 수립에 합의 후 상호 대표부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1993.11월) / 주한타이베이대표부(1994.1월) o 한·대만 정기노선 복항 (우리 국적기 : 2004.12월, 대만 국적기 : 2005.3월) o 2022년 상호 방문 130,066명(방한 대만인 78,318명 / 대만 방문 한국인 51,74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상호 방문 7,265명 (방한 대만인 : 4,130명 / 대만 방문 한국인 3,135명) 2020년 상호 방문 33만명 (방한 대만인 : 16만명 / 대만 방문 한국인 17만명) 2019년 상호 방문 250만명 (방한 대만인 : 126만명 / 대만 방문 한국인 124만명) - 우리 교민 : 약 6,600명(2023.1월 기준, 대만 이민서) / 재한 대만인 : 약 20,313명(2023.1월 기준) 	

② 정치제도

가. 대만의 5권분립(五權分立) 과 5원제(五院制)

- 대만은 중국이 이전에 실행해온 행정권(行政權), 고시권(考試權)과 감찰권(監察權)의 폐단이 큰 문제점에 대해 서양의 행정, 입법, 사법 3권분립의 장점을 고시권과 감찰권 독립의 장점과 융합하여 5권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었는데, 대만의 현행 정부조직이 바로 5권분립 헌법에 근거한 5원제로서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및 고시원으로 구성됨.

나. 총통(總統)과 부총통(副總統)

-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이며, 대만의 총통은 국가의 원수로서 전국의 육해공군을 통솔하고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포하고 계엄을 선포하며 공직인사를 임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및 복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

다. 행정원(行政院)과 입법원(立法院)

- 행정원은 최고행정기관으로 대만 전체의 내정, 외교, 국방, 재정 등을 포함한 대만 전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행정원의 수장은 원장 1인으로 총통이 임명하며 부원장 및 위원들은 원장이 추천하고 총통이 임명하고, 행정원은 8부(部)와 26개의 위(委), 서(署), 국(局), 원(院)으로 구성됨.
- 입법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입법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며 입법원은 행정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고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 및 감찰원 심사회계부의 심사회계장에 대한 임명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선전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직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음.

- 입법원은 원장, 부원장 각 1인씩 설치하며 입법위원은 113석이 있고 임기는 4년임. 입법원은 행정원장 및 각 부서 수장에 대한 질의권과 행정원장이 내린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 결의하거나 재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라. 사법원(司法院) · 고시원(考試院) · 감찰원(監察院)

- 사법원은 최고사법기관으로 해석권, 심판권, 계엄권,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며 구성은 대법관 15인을 설치하고 그 중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대법원장과 부원장으로 총통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함. 대법관은 회의의 방식으로 헌법 및 통일적인 법률, 명령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헌법법정을 구성하여 총통, 부총통에 대한 탄핵 및 정당의 위헌사항에 대한 해산을 심리하고 헌법은 법관이 당파를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권한과 종신직임을 규정하고 있음.
- 고시원은 원장,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고 있으며 고시위원을 모두 특별임명으로 선정하며 임기는 6년이고 총통이 제명하면 입법원의 동의로 임명되며 고시위원은 당파를 초월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함.
- 감찰원은 탄핵, 수사 및 감사권을 행사하고 감찰위원 29인을 설치하며 그 중 1인을 원장으로, 1인을 부원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며 총통이 제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됨. 감찰위원은 당파를 초월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함.

③ 선거제도

가. 개 요

○ 선거권 등

- 20세 이상의 국민이 직접·보통·비밀·평등선거를 통하여 대표자 선출

○ 역대 주요선거

- 2016. 1. 16. 제14대 중화민국 정·부총통선거, 입법위원 선거
- 2018. 11. 24.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선거
- 2020. 1. 16. 제15대 중화민국 정·부총통선거, 입법위원 선거
- 2022. 11. 26. 2022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선거

○ 총통·부총통선거

-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러닝메이트 방식을 통해 총통후보자가 부총통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됨.

○ 입원위원선거

- 총 113석(지역구 73석, 원주민대표6석, 비례대표 34석)으로 구성됨.

나. 중앙선거위원회

○ 공식명칭

- 中央選舉委員會 / 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China(CEC)

○ 설립연월일 : 1980. 6. 16.

○ 구 성 : 임기 4년의 위원 11인으로 구성됨.

- 위원은 입법원의 동의로 총통이 임명하며, 한 정당에서 1/3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음.

- 위원장은 의회 동의로 총통이 지명함.

○ 주요 업무

- 국가선거(총통·부통령, 입법위원 선거) 및 국민투표, 소환투표 등 관리

- 지방선거 관리(직할시장, 직할시의원, 현·시장, 현·시의원, 구·향·진시장, 구·향·진의원, 촌·리이장 선거)

다. 사회적 약자의 투표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 대만의 ‘가로형 투표용지’

- 문맹인 또는 발달 및 지적장애인의 경우에 이들에게 그림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투표용지에 사진(후보자) 또는 그림(정당 로고)을 넣어 사회적 약자가 선거정보를 인식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세로형보다 이미지를 삽입하기에 유리한 가로형 투표지를 채택하고 있음.



○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 1946년 제정된 헌법에서 남녀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였고, 동법 134조에 ‘각종 선거에서 여성할당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초기 부터 법률에 선출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를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음.
-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정당과 각종 선거 관련 법률의 개혁을 통해 본격화 되었고,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민진당이 자발적으로 이를 수용해 1996년 성별중립할당제를 도입한 후 1998년 지방정부법에 지정의석제 도입, 2000년 국민당의 지정의석제 도입, 2005년 헌법 개정을 통한 비례대표 여성 50% 공천 의무화로 이어짐.

IV 세부 연수내용

1 중앙선거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ssion)

가. 방문일자 : 2023. 8. 29.(화)

나. 면담자 :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 Mr. Lee, Chin-Yung 등

참석자 명단(CEC)

- Chairperson **Mr. Lee, Chin-Yung** (위원장)
- Chief Secretary **Ms. Hsieh, Mei-Lin** (비서실장)
- Director General of Dept of Planning **Ms. Chang, Tai-Chi** (기획국장)
- Director General of Dept of Electoral Affairs **Mr. Tsai, Jin-Gaw** (선거국장)
- Section Chief of Dept of Legal Affairs **Mr. Tang, Shiaw-Jiun** (법무부장)

다. 주요 질의답변(요약)

□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방문 환영 인사말

⇒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투표 관리에 대해 저는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한국 공무원들을 뵙게 되고 저희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양국 간에는 지속적인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서도 민주주의를 서로 이해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8년 초창기 때 대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뵙는 적이 있었고 이후 2020년 초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상호 교류가 불가능해졌지만 그 이후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상호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상호 교류하여 좀 더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① 대만의 투·개표 절차에 대한 소개와 대만 선거의 특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여덟 시에서 오후 네 시까지며 이후에 개표가 시작되는데 장소는 같더라도 시간을 달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덧붙여 대만에서 다소 특이한 방식을 소개하자면 개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하나하나 모두 펼쳐 몇 번을 선택했는지 직접 확인하여 화이트보드에 표기하는 수작업을 통해 1차로 추립니다. 이 확인 작업에 있어 특이한 점은 검표하는 과정을 누구나 제한없이 촬영·녹음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 일지라도 모두 공개함으로써 공정함을 증명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표당일 저녁이 끝나기 전까지 개표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개표가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릴 수 있으나 큰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선거에서는 밤 11~12시쯤 마무리되었습니다.

- ② 한국에서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이 별도의 개표소로 옮겨져 별도로 설비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됩니다. 대만의 경우 투표소에서 개표가 바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투표 종료 후 개표사무원의 변경이 있는지요?

⇒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사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과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진행한다면 이동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표관리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표와 개표 사무원은 별도 변경 없이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인원이 개표사무원으로 그대로 근무합니다.

- ③ 그렇다면 투개표사무원들이 장시간 근무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요? 덧붙여 한국에서도 대만과 유사하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데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 대만의 상황도 다소 비슷합니다. 장기간 근무로 인해 지방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는 선거관리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주주의를 지속하는 기반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대만의 젊은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본 업무가 아닌 선거 관련 업무가 맡겨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에서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업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추가 보조금(수당)을 더 지급하여 동원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④ 대만의 투표용지는 가로형 투표용지를 채택하고 있고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와 후보자 사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대만에서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세로형 투표용지가 아닌 가로형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로형 투표용지의 경우 윗 순번에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인의 입장에는 무의식적으로 상호 우열을 나타내는 우선순위로 인식, 예컨대 5, 6, 7번 보다는 1, 2, 3번이 유리한 경우를 포함한 우려가 있어 가로형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을 모르는 사람, 대만 국민이지만 한자에 익숙지 않은 화교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더 쉽게 후보자나 정당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과 로고를 넣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대만에서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를 더 쉽게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④-1 사회적인 약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진과 로고가 들어간다는 점은 인상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갈 경우 투표용지가 길어지게 되는 데 이로 인한 물의 사례는 없었습니까?

⇒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대다수 업무가 수개표로 진행되다보니 물의사례나 특이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④-2 혹시 우편투표 등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고려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대만에서는 우편투표나 대리투표 제도는 별도로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디오 선거공보 녹화나 공영방송 정견발표회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 장애인들이 편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소 장소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투개표소 매뉴얼에 임산부,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등이 방문했을 경우 다른 현장에 선거인과 협의해 이들을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게 하여 투표하게 하는 ‘우선투표조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표소 입구에 관련한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투표관리관 직무에 명시하여 또한 노인, 심신장애인, 기타 특수 수요자의 투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의 투표를 돕기위한 보조용구와 돋보기 안경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할시, 시(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신장애 선거인의 모의투표를 위해 심신장애 단체와 협력하여 선거인이 현장에서 투표 과정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의투표를 진행하기도 하며, 지적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알기 쉽게 투표절차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리플릿을 별도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인용 그림 카드를 작성하여 각 투표소로 보급하고, 투표소 직원이 청각장애인에게 투표절차 및 투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무장애선거구획(배리어프리존)’을 설치하여 심신장애 선거인들이 손쉽게 선거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오디오 선거공보, 심신장애 선거인 투표협조 조치, 쉬운 버전의 투표안내 책자, 그림으로 설명하는 투표절차표 등

을 설치하고 즉각적으로 장애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원주민들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끼리 선거를 치러 별도 의석수를 배당하여 소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선거관리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 대만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매우 심각할 때 질병관리청(CDC)에서 확진자를 중앙적으로 통제하여 확진자들을 따로 분류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자(확진 2주 이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음성을 확인하고 확진됐었던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따로 마련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민주적인 투표권을 보장하여 투표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던 범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우선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여러 방역조치들, 예컨대 공무원(사무원)들 방역복, 마스크, 소독제 등 지급을 통해 민주적인 선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⑥ 한국의 경우 청년 세대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어떠하며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요?

⇒ 대만에서도 선거가 끝난 후 투표율에 대해 통계분석을 하는데 한국과 유사하게 청년 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만에서도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의 투표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정치 의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젊은이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를 통해서 선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투표참여를 독려할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단순히 젊은이들의 선거(정치, 투표) 참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제1목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SNS는 매우 쉽게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를 통해 선거 일정에 대해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긴 동영상은 보지 않으니 최대한 짧은 영상에 핵심을 담아 홍보를 하고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 내 매체 등을 통해 절차를 홍보하는 등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투표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⑦ 대만의 경우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 제기나 선거절차에 대한 불신 또는 당락 결정에 따른 의혹 제기가 있나요?

⇒ 저희도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제1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당 소속을 분리하고 서로 나눠져 서로 견제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결과에 대해 판단(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일반 대중이나, 정당은 법적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서 선거관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까지 중앙선거위원회가 부정을 했다거나 의혹이 있다거나 하는 절차적인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위원회가 중립을 지키면서 공신력있게 판단(결정)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입니다.

⑧ 투·개표참관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대만에서 참관인은 옴부즈맨이라고 부릅니다. 정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투표소마다 2명 이상의 옴부즈맨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시장급, 시장급, 구의원급 선거가 같이 진행될 때 해당

선거마다 각 정당에서 1명씩의 옴부즈맨을 추천합니다.

옴부즈맨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만 18세 이상이어야하며 둘째, 형사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하며, 셋째 후보자와 친족계통이거나 조직상황에 있어서 직속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만 72세가 넘어서는 안되는데 이는 투표에서 개표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장시간이기에 신체적으로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2,000TWD(한화 약 8만8천원)을 지급합니다.

- ⑨ 한국의 경우 SNS에 발달로 선거절차에 대한 의혹, 후보자 관련 페이크 뉴스(가짜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만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이고 둘째는 중앙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선거 절차 업무에 대한 가짜 뉴스입니다.

전자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의 경우 저희는 중립성이 제1사명이기 때문에 후보자 상호간의 공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접하자마자 SNS를 통해서 직접 해명자료를 올림으로써 이반 대중들이 사실(팩트)을 알 수 있게끔하고 관련 언론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입장에서 흥미로운 법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올해 6월 새로 발의된 법안인데, 이는 중앙선거 위원회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인 등 SNS 회사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될 경우 바로 AI기술을 통해 잡아내고, SNS로 인한 가짜 뉴스로 후보자가 선동된 공격을 받았을 경우 사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체 회의 종료 후 실무진과의 추가 질문 및 의견 교환

Q : SNS 기관 대다수가 미국 등 외국계 기업인데 협조가 어렵지 않았나요?

A : 사실 외국계 기업이기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협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법안을 주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각 회사와 협력을 하였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 이후 정당 및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현지인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최근 중국으로 추정되는 가짜뉴스가 대만에 만연히 퍼져있는 상황이기에 대만 정부 차원에서 2024년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시 중국에 우호적인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 가짜뉴스 전파 등을 우려하는 차원에서의 법안임을 추정할 수 있었음

라. 관련 사진 등



[전체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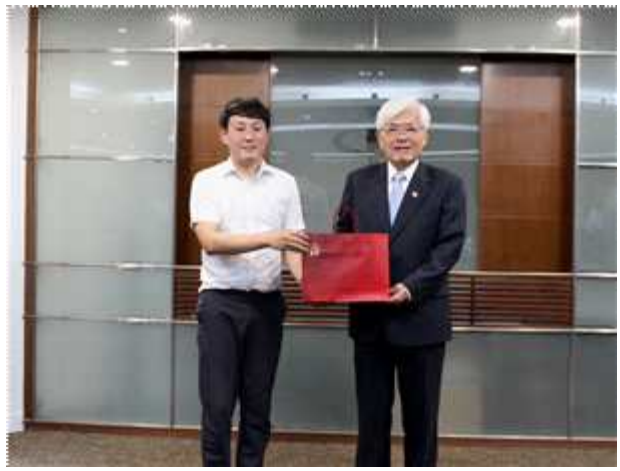
[CEC 기관소개 브리핑]



[상호 자료 교환 및 의견 교류]



[기념 촬영]



[기념품 전달]



[대만의 가로형 투표용지 실물]

② 대만 국립대학(Taiwan National University)

가. 방문일자 : 2023. 8. 31.(목)

나. 주요 면담자 : Shih-min Chen(국립대만대학 정치학과 교수)

다. 질의응답 주요내용(요약)

- ① 한국의 경우 정치참여에 있어 청년들보다는 장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대만의 경우는 어떤가요?

⇒ 대만도 청년의 투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처럼 대만의 경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국가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대만이 유사한 외교안보 환경을 지닌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이 정치 상황에 조금 더 관심(참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먼저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인 위협(중국을 의미함)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북한을 의미함)보다 좀 더 심각하고 다방면적으로, 그리고 더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청년들이 인식하는 북한에 대한 위협도에 비해 대만 청년들은 중국에 대한 위협도를 현실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외교 안보 상황에 따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예가 바로 2014년에 발생한 '해바라기 운동'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 초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 관계에 있어 중국에 있는 모든 서비스 업체에 대한 것들이 무관세로 대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법안("양안서비스무역협정, CSSTA")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진행될 경우, 대만에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고, 대만에 있는 일자리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대만 청년 세대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감을 촉발했고, 대만 청년세대들이 집권당의 친중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입법원을 기습 점거하여 시위했던 사건이 바로 해바라기 운동입니다. 즉 이러한 친중 또는 반중이라는 정치적으로 큰 어젠더가 있었고, 양안서비스 무역협정처럼 직접적으로 대만 청년에게 불이익으로 닥칠 정책들을 가시화되면서 대만 청년들의 정치관심도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즉 선거제도 및 정치 문화 개선이나 보완 등도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만 저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나 쟁점이 충분히 있어야 정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지나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심이 덜할 수 있지만 이는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입니다.

- ② 교수님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선거에 관련한 법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배려 등 제도의 개선보다는 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쟁점이나 정치적 이슈가 있어야 정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만 외에도 거의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보일 수 있는 양상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사회에서 일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에 관심을 갖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정한 문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즉 목소리를 내는 부류의 숫자가 커질 것입니다.

즉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나, 한국, 일본, 대만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앞서 설명했듯 현재 대만의 민주주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젊은 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청년들보다 대만의 청년세대가 더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③ 대만의 경우 국민투표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실상 한국과는 다르게 대만에서는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2004년, 2008년, 2014년, 2019년 등 여러 국민투표 실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투표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안전이 통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50%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 지지가 어렵습니다.

즉 대만에서의 국민투표는 대만의 정치적 발전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절차의 역할보다는 반대당이 집권당을 공격, 혹은 집권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목적이 컸다고 판단합니다.

작년에 실시된 국민투표 사례를 말씀드리면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도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찬성·반대의 사례였는데 야당이 집권 여당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작 실제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하여 부결되었습니다.

④ 대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등 정치 특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 한국과 유사하게 대만에도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는 소수, 즉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입법원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비례대표제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의원이 되도록 헌법에 명문화(강행조항)돼 있습니다.(한국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명시됨)

또한 대만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지역구 64%, 비례대표 30%, 원주민대표 6%) 대만의 경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민중당, 시대역량, 대만독립당, 대만지지당, 대만독립지지당 등 다양한 군소정당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비례대표제도는 전국 지지율의 5% 이상이 돼야 의석을 차지하는 봉쇄조항이 있는데 이 비율을 독일 등과 같이 3%로 낮춰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정치활동 경우 현재 대만의 총통은 여자입니다. 중화권에서는 최초의 여자 대통령(총통)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 있는 편이며 국회에서 비례대표의 50% 이상은 여성으로 할당되는 것으로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대만의 여성 정치 참여는 세계에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대만은 비례대표와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여성할당제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 ⑤ 비례대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자면, 한국의 경우 여성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재선, 3선 등으로 이어져 중진으로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만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사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일조하므로 한국과 대만의 상황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 타이중에 시의원으로서 당선됐다가, 여성임을 오히려 부각하여 자상한 어머니의 이미지로서 재선에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의원이 남성에 비해 친절하고 꼼꼼한 이미지를 부각하여 표심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여성이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한다거나 그 다음 선거에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상 대만에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성의 이미지를 잘 구축하여 선거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⑥ 대만 정치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 뛰어난 점은 총통제와 행정원장의 권력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정치제도에서 권력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는 시스템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처럼 한쪽이 거대해져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꼭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반대당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 부결된다거나 하는 것이 있지만 이는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협의로써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뿐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⑦ 앞서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방문도 그렇고 현지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을 고려했을 때, 외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중국의 위협을 대만인들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처럼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가 유사한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 질문처럼 한국과 북한과의 상황과 대만과 중국과의 상황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38선이라는 아주 명확한 긴장 구도가 있는 반면에 중국과 대만은 사실상 그런 **명확한 군사 분계선도 없을뿐더러** 양안 간에는 여러 경제·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류·협력을 가장한 **간첩 침투, 사이버 공격, 사이버 공작활동, 여론 조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만 내에도 친중적 성향을 가진 정당과 반중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중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친중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여론 조작을 시도합니다.

정당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대만 시민 중 약 5% 정도는 중국과의 통일을 바로 지지하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비록 95% 대다수의 여론이 반중, 혹은 중국과의 통일을 보류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의 여론을 마치 100%의 의견인 것마냥 조작·왜곡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것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SNS(틱톡) 또는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이용합니다.

일례로 들면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영상 등을 올리는 어플인데 현재 대만인 2300만명 중 400만명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SNS입니다. 그런데 이 어플 중 인기를 받는 인플루언서 상당수가 중국의 지원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여 반중 정책을 펼치는 정당에 대해 비우호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일부러 비판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젊은이들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호도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러한 **여론조작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은 대만 중앙

정부 특히 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혹은 여론 조작을 통한 민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틱톡에 있어 가짜 신분, 또는 가짜 뉴스 등으로 판별된 경우 바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AI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말이 나온 김에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실상 대만과 한국의 외교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와 맞서고 있는 전진기지 중 하나의 구도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외교 안보를 공유하고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알아가는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관련 사진 등



[대만 국립대학 방문]



[상호 면담1]



[상호 면담2]



[기념 촬영]

③ 시대역량(NPP – New Power Party)

가. 방문일자 : 2023. 9. 1.(금)

나. 주요 면담자 : NPP 사무총장 Lee Chaoli 등

참석자 명단(NPP)

- Secretary General **Lee Chaoli** (사무총장)
- Spokesperson **Mr. Lim Ek-eng** (대변인)
- Executive Policy Research **Tseng-Chi, Chang** (정책연구부 담당관)
- Policy Research Researcher **Li, Yi-Ling** (정책연구부 연구원)

다. 질의응답 주요내용(요약)

① 시대역량 정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시대역량 정당은 2015년에 창당을 하였고 말씀하셨다시피 대만 청년들을 최대한 대표하는 정당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인사를 나눴다시피 여러분 앞에 계시는 지금 여성 간부(Mr. Lim Ek-eng 대변인)님께서도 한국 나이로 이제 32세 국제 나이로만 30세입니다. 지금 앞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당 간부들 또한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 즉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책을 고민하고 입안하고,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저희는 자신 있게 시대 역량 정당이 대만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대만의 청년 계층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 먼저 대변인인 제 경험을 들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타이난에서부터 정당 활동 경력을 쌓았습니다. 처음 정치 활동을 한

것은 25살이고, 약 5년간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정확히 해바라기 운동 즉 중국 명칭으로 태양화운동이 있었던 그 세대입니다. 먼저 대만의 정치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대만도 한국의 유신 정권과 유사하게 국민당 1당 독재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노년층 즉 지금 저희의 아버지 세대들은 국민당에 대한 정치관심도나 열정이 국민당에 쏠려 있습니다.

1980년~90년대 들어 대만에서도 민주화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태어난 세대가 바로 지금의 20~30대 저희들입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민주화를 겪었고, 정치 참여에 있어서 열린 세대들이 지금의 대만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의 청년들입니다. 저희가 20대 초반에 대학가 내에서 해바라기 운동이 일어났고 그 운동을 계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청년으로 구분하자면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광범위한 계층을 지칭하는 말인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경우 해바라기 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고, 겪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것이 아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겪은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의 경우 정치관심도는 해바라기운동을 겪은 세대에 비해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대만의 청년 계층으로 지칭되는 10~30대 내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적극도, 경험을 겪은 사건 등에 대한 공감대가 다르므로 범주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이 다른 국가들의 청년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③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만도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대적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적극적

으로 돕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 먼저 청년들에게 정치가 청년들의 삶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정책들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를 들면 SNS와 같이 청년들에게 친숙한 매체 등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정당'이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 직접 법안을 발의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년들의 날 것인 목소리를 법안으로 구체화시켜 그 여론을 정치에 담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청년 층의 정치참여를 돕는 방법이자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차원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돕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 가입에 있어서 기회를 폭넓게 허용하고, 순수하게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들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대역량의 경우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와 교육이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제(대변인)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소개하자면 저는 만 26세 나이로 타이난에서 첫 번째로 선거운동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이 약 20만 대만달러(약 9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대만 물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보증금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정당에서 이를 지원해줬기에 부담없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투명하게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만을 살핍니다. 저희 정당 외에도 두 거대양당에는 청년 정치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희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치 권문세족'입니다. 비록 그들은 청년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가문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공천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대역량은 그러한 가문의

이력사항이 아닌 인물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치인의 약점인 전문성을 보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책 입안에 있어 청년들은 정책적 전문성이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위해선 많은 시간과 인력,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당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의 정당원들을 결집하여 보완하고 입안합니다. 즉 청년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담고, 기존의 정치가문이 아닌 신선한 인물을 공천하며, 청년들의 약점인 전문성과 재정을 지원·보강하여 정책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④ 시대역량이 결성하게 된 배경인 해바라기 운동과 그에 따른 과급 효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해바라기 운동이 발생한 지 이제 정확히 10주년입니다. 당시에는 국민의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중국과 대만간 무역 협정서비스 체결안이 통과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간략히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자면 무관세로 중국에 있는 시장과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대만으로 아무런 제재없이 올 수 있게 되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모든 것이 열려지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피해입는 계층은 대학생 당시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중국에게 뺏길 것이고 청년 엘리트들이 중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안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0초만에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분노를 느낀 많은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당시 20대 대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민주주의를 누리며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만과 중국 사이의 모든 빗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대만이 중국으로 빠른 시기에

귀속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충분했습니다.

한 가지 더 배경 설명을 하자면 해바라기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반매체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만의 많은 언론 매체들은 중국에게 실제적으로 넘어가거나 중국 자본에 잠식돼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2014년 언론사 관계자들이 중국 내 간첩으로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많은 청년들이 친중 성향의 신문들을 보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즉 해바라기 운동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전 반매체 운동과 같은 모의 고사를 한 번 치러봤기 때문에 본고사로는 좀 더 쉽게, 그리고 이미 반매체 운동으로 조직된 동지들이 있었기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용이했습니다.

다만 해바라기 운동이 시대역량을 결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으나 시대역량 외에도 다른 반중 중심의 군소 정당 등을 태동하게 된 계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⑤ 해바라기 운동에서 대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 원동력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만 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대만 젊은이들의 불만이 누적된 것이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0년 전 즉 20대 때 제 월급이 약 8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경우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해서 방값 등이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합니다. 당시로는 대략 5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즉 직장 초년생의 경우 8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50만원이 방값이고 30만원으로 끼니를 겨우 해결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경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사회 초년생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내고, 말씀

드렸다고 좋은 일자리는 중국으로 넘어가고, 똑똑하다는 인재들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청년들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었던 차에, 2014년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중국으로 넘어가는 무역협정이 통과되려하자 불만이 폭발된 것으로 봅니다.

두 번 째로 다른 원동력으로 대만 청년들은 보통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대만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높으며 점차 누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인'이라고 자신을 인식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당시의 친중정책들은 자신이 중국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즉 기성세대가 바라는 통일(본인들이 정통 중국으로 여기면서 중화민국식 통일을 희망)보다는 중국과는 아예 별개 국가로 성립되길 바라는 젊은 층들의 분노가 2014년 무역협정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폭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대만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기성세대와 다른 젊은이들의 정체성이 해바라기 운동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자면, 한국-북한과 양상과 유사하면서도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실상 한국을 볼 때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제외하자면 무역·경제·외교·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실상 압도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다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무력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대만을 압박해왔고, 중국이 바라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 사람이하고자 하는 정체성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는 일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생존 그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87년 한국의 경우 대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 중심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 점차 줄어들어 거의 현재는 대학생 중심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대만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이후에도 대만의 학생회는 대만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중국의 위협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큰 어젠더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영향력을 잔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⑥ 대만의 정계와 유사하게 한국 역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대 거대 정당이 국회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려면 군소정당 등의 입법원 진출이 용이해져야 할텐데 관련해서 시대역량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요?

⇒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대만의 경우 국회의원 한 명 당 이를 대변하는 국민 수가 매우 높은, 즉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입법위원의 숫자를 현재 113석에서 200석 가까이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비례대표제를 적극 늘려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 애초에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됐는데,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추가적으로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혹은 학계에서 비례대표의원, 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국회의원의 수 혹은 비례대표의원의 수가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거부감이 덜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대만의 경우도 한국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 즉 정치적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국민 대다수도 의석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정치 엘리트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부감을 지닙니다. 그런데 정치 엘리트들이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입법위원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에게 더 삶에 와닿는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 바뀌어나간다면 이런 정치적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 관련 사진 등



[당 간부 등과의 기념 촬영]



[기념품 전달 등]

④ 현지인 및 유학생 면담

가. 방문일자 : 2023. 8. 31.(목), 9. 1.(금)

나. 면담자 : 黃德明, 林格律, 吳柏成(8. 31.) 이 찬(9. 1.)

다. 주요 질의답변

○ 현지인 면담

① 지난 2020. 입법위원선거나 총통선거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여하신(혹은 참여하지 않은) 계기가 있다면?

⇒ (黃德明, 이하 黃) 네,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참여한 계기는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林格律, 이하 林) 아니오, 지난 번에는 개인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투표를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편은 아닙니다.

⇒ (吳柏成, 이하 吳) 당시에는 미성년자여서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있을 2024년 입법위원 선거와 총통선거부터 투표권이 생겨 참여할 예정입니다.

② 주변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인가요?

⇒ (黃)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인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라던지 선거 때 이런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부터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듣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 (林) 주변 친구들이 대학생인 경우가 많고 취업이라던지 사는 문제가 겹쳐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꽤 됩니다.

⇒ (吳) 저는 관심이 있는 편이지만 주변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할아버지 세대의 경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상대적으로 덜 참여하고, 저희 20대들은 관심이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나이든 분은 투표하기 위해 타이난에서 타이베

이까지 약 2시간정도 기차를 타고 이동해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대만은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와 같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부재)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과연 저희같은 20대에겐 저 정도의 열정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③ 일부 학계 등에서는 2014년에 발생한 해바라기 운동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됐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黃) 일종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분노를 촉발시킨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청년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당시 대만 남부(가오슝)에 있었고 해바라기운동이 북부 소재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생했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오슝 대학생들과 타이베이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바라기 운동 전부터 정부의 친중 정책에 우려와 반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무역협정이 도화선이 됐었을 뿐이지, 그 외의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찌됐든 터졌을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 (林) 해바라기 운동의 영향력이 당시에는 컸겠지만 과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바라기 운동으로 인해 창당된 정당(시대역량)에서 당선된 입법위원 등 상당수가 다른 거대양당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의도가 순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엔 결국 해바라기 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높인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물론 해바라기운동의 의미를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그 당시와 약 10여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吳) 태양화 운동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어렸지만 간접적으로 SNS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접한 적이 있고, 친중국 정책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며 인상 깊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친중과 반중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20대 청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대만의 공직선거의 경우 투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데, 투표참여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 (黃) 투표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선거일이 공휴일이어서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 (林) 원래 더 길었다가 줄었으면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경된 부분이 없어서 그닥 짧다는 느낌은 못 들었습니다.

⇒ (吳) 아직 투표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줄이 긴 것을 몸소 체험해본다면 좀 더 투표 시간이 길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⑤ 중국과 대만의 외교 안보적으로 예민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혹시 이러한 중국의 위협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편인가요?

⇒ (黃) 2014년에 홍콩에서 ‘우산시위’와 같이 반중국 시위를 펼쳤던 것처럼 대만도 2014년 친중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났던 주된 이유는 중국이 홍콩을 정치·경제적으로 집어삼키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홍콩은 이러한 민주화 운동은 잠잠해졌고 남은 것은 우리나라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무력적 갈등은 없었지만 근 시간 내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닥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林)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친중 대 반중의 프레임 자체도 각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도 실제로 있는 위협인지 혹은 또 특정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목표로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吳) SNS나 뉴스 등을 통해 종종 느끼곤 합니다. 사실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적은 없습니다.

○ 유학생 면담

①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대만국립대학 정치학과에서 석사과정으로 있는 이 찬입니다. 현재 대만에서 공부한 지 1년 정도 됐고 정치학 중 군사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② 대만에서 1년간 체류하시면서 한류라던지 한국에 대한 대만의 인식은 어떤 편입니까?

⇒ 좋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한국 드라마로 인해 다소 한국 남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고, 남성들은 이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입니다.

실제로 이전부터 타이베이의 경우 친한, 친일 쪽의 문화가 많은 편입니다. 한국에 많은 인생네컷과 같은 즉석사진을 찍는 업체도 최근 한국식 포토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타이베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심심찮게 한국 아이돌 음악이 나오기도 합니다.

③ 대만과 한국의 정치문화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슷한 부분이 일단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대한 양당이 의석을 대다수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영호남처럼 한 정당이 해당 지역에서 대거 당선되는 지역주의 문화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때 찍는 점 복자의 기호도 대만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한 편입니다. 그 외로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보다 중국에 대한 민감함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가지 소개하자면, 대만은 국외 투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입국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속한 지역구의 입법위원이 친중 성향의 정치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선거구민이 해외에 있다가 투표를 위해 귀국하고 투표 후 다시 나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친중 또는 반중에 대한 의견이 극렬히 나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대만과 중국에 비하면 그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해바라기 운동을 통해 결성된 시대역량당의 경우 현지에서의 상황이나 반응 등은 어떻습니까?

⇒ 정치적인 성향은 우리나라의 정의당과 거의 유사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소 진보적이고, 동성애 등에 우호적이며 편견을 가지지 않는 청년 정치들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노동계를 대변한다는 느낌이 있다면 시대역량당의 경우에는 노동계보다는 청년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결성할 때와 달리 간판 정치인들이 대거 탈당하고 현재 내분 중인 상황이어서 세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V

시사점 및 총평

□ 시사점

○ 양국의 정치, 선거제도 주요 비교

	한 국	대 만	비 고
국회의원 임기	4년	4년*	* 대만의 경우 총통선거(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와 입법위원 선거가 동시(2024년 1월 예정)에 치러짐
국회의원 수 (입법의원 수)	300석	113석*	* 2008년 이후 의원 수 축소
선거권 연령	18세	20세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원주민 선거구*의 경우 중선거구제)	* 원주민 선거구 의석 : 6석
투표 시각	06:00~18:00	08:00~16:00	
선거일 투표 외 투표방식	사전투표, 재외선거 有	사전투표, 재외선거 無	대만의 경우 선거일 투표만 가능
투표함	투표소당 투표함 1개	각 선거마다 투표함을 별도로 사용	
투표용지	세로형 투표용지 (교육감 제외)	가로형 투표용지	

○ 대만은 사회적 약자의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문맹(대만어에 익숙하지 않은 화교 등)을 위한 배려로 투표용지에 사진과 정당명을 기재하고, 군소정당의 배려를 위해 세로형이 아닌 가로형의

배치를 사용함.

- 또한 투표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 등의 이동 없이 투표 종료 즉시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개표를 진행함. 별도 교육 없이 투표사무원의 개표 업무를 병행하기 위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복잡한 장비(투표지분류기)등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음.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선거권자의 선거절차에 대한 불신은 적음. 투·개표사무원의 별도 교체없이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등의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다소 있지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음.

정당 추천의 투·개표참관인과 이들을 위한 수당(한화 88,000원 정도)지급한다는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참관할 수 있는 최고연령(만 72세)에 제한을 둔 점은 흥미로운 지점임.

-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전체 입법위원 중 30%)이 높으며, 비례대표의 여성할당과 관련한 강제조항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비해 우호적이며, 이미 여성의 정치참여가 정착돼 있는 상황이기에 성별로 인한 불리한 조건을 없으며, 오히려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상을 적극 활용하여 선거 전략에 이용하여 표심을 잡는 경우도 있음.

- 대만 역시 청년 세대의 투표참여나 정치참여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정치 관심과 참여가 높음. 그러나 이는 제도 및 관련선거법의 보완, 해당 관리부서의 홍보의 적극성 등의 영역보다는 중국과 대만 관계인 양안 관계의 민감성, 대만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특수

조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대만의 청년들이 정치세력화에 성공하고, 원내진입까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불만 즉 양안 관계가 매우 큰 역할을 차지했으며, 한국의 민주화 이후 학생 중심의 민주화 세력이 약화됐던 것과 달리 대만은 민주화 이후에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존재하기에, 학생 중심의 원동력이 민주화 이후에도 잔존할 수 있었고 대표적인 예로 2014년 해바라기 운동(대학생 중심의 입법원 점거사건)을 통해 표출됨.
- 대만의 양안 관계와 한국의 남북 관계는 외교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음. 특히 SNS에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제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한국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의 깊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총 평

- 이번 연수는 선거관련 공공기관 방문 외에도 학계·정당·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정치 전반의 폭넓은 의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임.
- 전반적으로 대만 시민들은 중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에 우호적이며, 주요 거리에는 아이브, 뉴진스 등 한국 아이돌의 노래가 자주 들릴 정도로 한류가 빠르게 확산 중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음.
- 한편 수도권 중심의 쏠림현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치인에 대한 불신,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 문제 등은 한국 사회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향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함.
- 특히 대만·중국간 외교적 관계가 외부에서의 관점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10년내 동북아 외교안보 상황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최근 중국발 해킹 우려가 대만 사회에 늘어나면서 관공소 및 기타 공공단체는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관 이메일, 개인 이메일 등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것이 없어, 기관간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잦음.
- 특히 2024년에 총통선거와 입법위원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정당·정치인 대 반중 성향의 정당의 대립(혹은 중국의 개입 등),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덧붙임 1. 대만 선관위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CEC) 1부

2. 중앙선거위원회 소개 및 홍보자료(책자) 2부.

3. 2022년 지방공직자선거 및 국민투표 투표방법 안내(팸플릿) 1부.

4. 2022년 지방공직자선거 및 국민투표 투개표소 직원수첩(투개표매뉴얼) 1부.

5. 2022년 지방공직자선거 및 국민투표 투표안내 책자 1부.

6. 이민자를 위한 선거 참여 안내(리플릿 : 영문, 중국어번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7부.

7.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홍보 동영상(CD) 1부(원본 별도 송부). 끝.